

2007. 10.25(木)

第52回 韓經研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 주제 : 2008년 우리경제, 얼마나 좋아지나?
- 연사 : 허찬국 본부장(본원 경제연구본부)

Free Market

Free Enterprise

Free Competition

2008년 우리 경제, 얼마나 좋아지나?

2007. 10. 25

허찬국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쉽게 보는 2008년 경제전망

1. 수출 증가세 지속될까 (YES, yes, no, NO)
서브프라임 부실, 중국, 고유가
2. 소비, 투자 등 내수 본격적으로 좋아지나 (YES, yes, no, NO)
고유가, 자본유입과 금융 및 외환시장 시장 불안
3. 새 정부, 경제운용 잘 할까 (YES, yes, no, NO)
취임초기부터 초점 맞추어진 국정운영

매우 좋음 (1-YES, 2-YES, 3-YES) 6% 넘는 성장

매우 나쁨 (1-NO, 2-NO, 3-NO) 3% 수준 성장

한경연 2007년 10월 baseline 전망 (1-yes, 2-yes, 3-yes) 5.1% 성장



I.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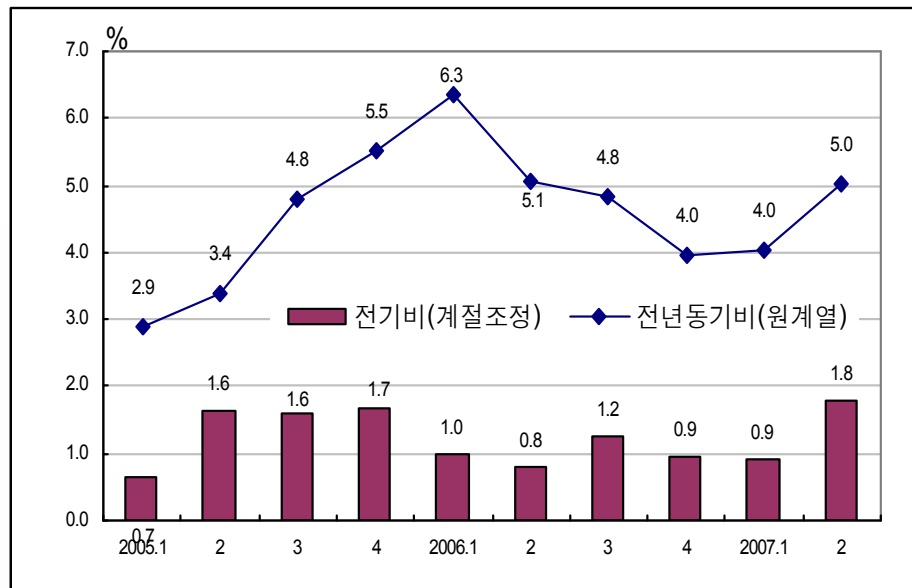


I.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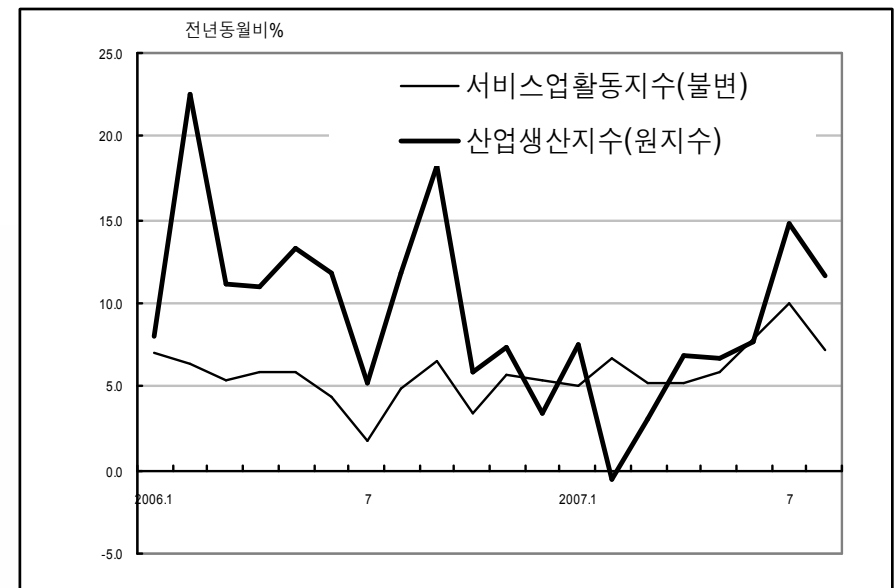
□ 올 1/4분기 이후의 성장모멘텀 지속

- 성장률(전년동기비) : 4.0%('07 1Q) → 5.0%(2Q)
- 7~8월 중 제조업 생산 및 서비스업활동 증가세 확대

〈그림 1〉 분기별 경제성장률



〈그림 2〉 제조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활동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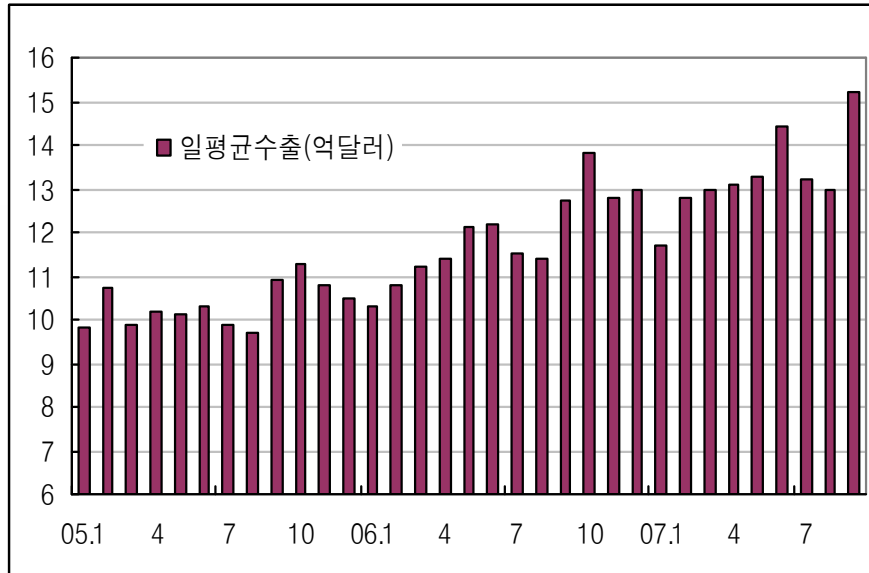


I.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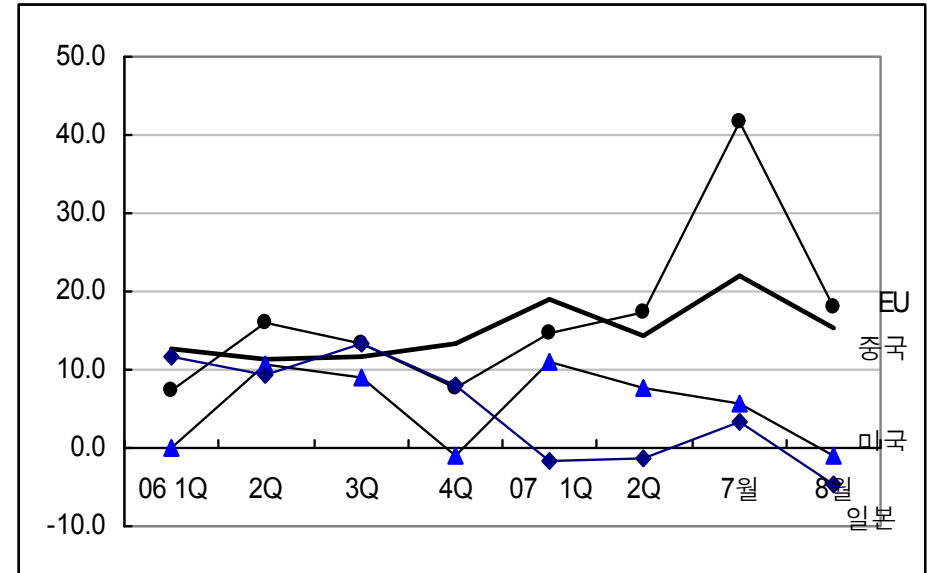
□ 수출호조 지속

- 월별 일평균 수출금액: 3월 이후 13억 달러 지속적으로 상회
- 대중국 수출, 대EU 수출 호조세에 기인
 - 반면 대미, 대일 수출은 부진

<그림 3> 월별 일평균 수출금액



<그림 4>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



I. 최근 경제동향

□ 내수부문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 지속

- 도소매판매, 소비재판매 등 소비지표는 꾸준히 개선
- 설비투자는 7~8월 부진했으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7~8월 중 약 17% 증가
 - 7~8월은 지난 해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와 상반기 일시적인 요인(ATM 교체투자) 등의 영향 받음.
-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7~8월 중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선행지수인 건설수주는 부진

〈표 1〉 주요 내수지표 추이

	2006년				2007년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도소매판매	4.5	4.4	4.0	4.2	5.3	4.4	7.7	4.5
소비재판매	6.1	2.9	4.5	4.7	7.1	5.3	9.8	7.1
설비투자추계(불변)	6.7	11.8	5.1	7.4	11.3	12.1	1.0	1.7
국내기계수주(불변)	24.4	21.0	16.7	18.8	15.3	7.4	30.2	4.7
건설기성액(경상)	-0.3	4.8	6.0	3.7	6.5	5.2	12.3	5.5
건설수주(경상)	-14.7	37.1	27.1	9.0	26.3	26.3	-14.9	13.4

I. 최근 경제동향

- 경상수지,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7~8월 중 흑자로 전환
 - 2007년 7~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2.5억 달러로 상반기 적자(16.3억 달러)에 비해 약 39억 달러 개선
 - 지난 해 7~8월(-10.3억 달러)에 비해서도 약 33억 달러 개선
 -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를 상회하면서 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된 데 기인

〈표 2〉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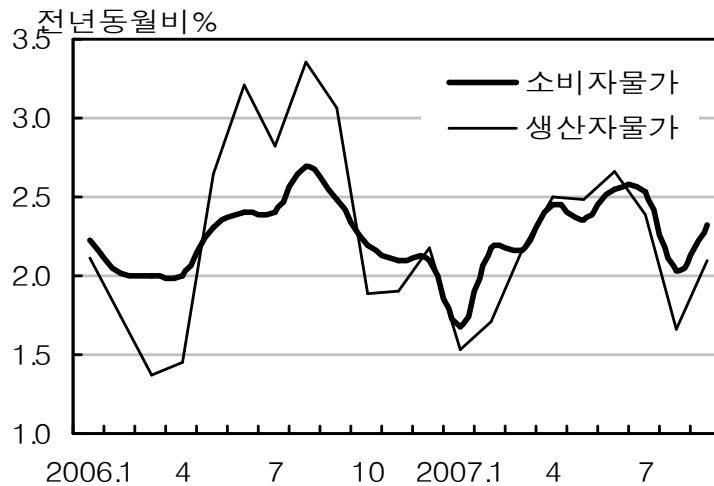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2006년						2007년		
	1/4	2/4	7-8월	3/4	4/4	연간	1/4	2/4	7-8월
경상수지 (=A+B+C+D)	-11.2	6.9	-10.3	3.7	61.4	60.9	-16.6	0.3	22.5
A. 상품수지	52.2	74.1	30.6	62.3	103.5	292.1	60.4	69.7	60.7
B. 서비스수지	-50.0	-38.8	-38.3	-53.8	-45.0	-187.6	-61.8	-44.0	-41.3
여행수지	-29.5	-28.4	-26.2	-37.8	-33.4	-129.2	-36.1	-36.6	-31.4
사업서비스수지	-15.1	-15.1	-11.6	-18.5	-19.6	-68.3	-22.6	-17.1	-12.3
C. 소득수지	-4.8	-16.5	3.6	6.1	9.8	-5.4	-6.9	-15.4	9.8
D. 경상이전수지	-8.6	-11.9	-6.2	-10.8	-6.8	-38.2	-8.3	-10.0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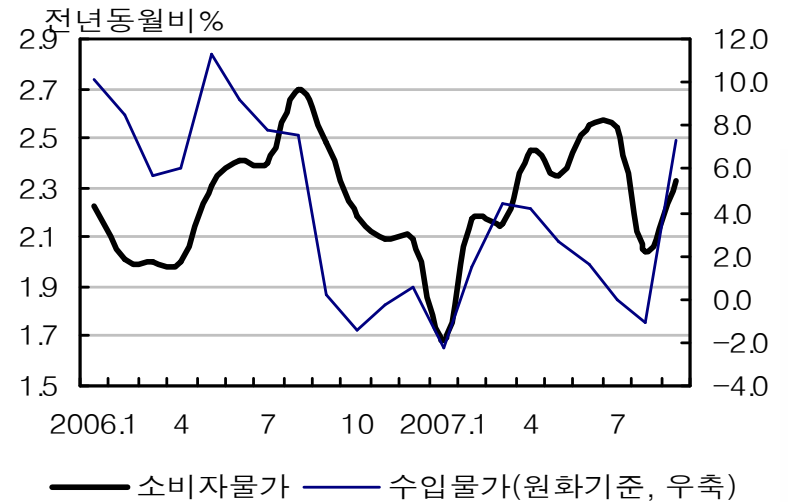
I. 최근 경제동향

- 소비자물가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물가증가세 둔화로 2%대 초반의 안정세 유지
 -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4분기(2.4%)보다 0.1%p 하락
 -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안정된데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환율절상으로 상쇄되면서 수입물가가 하락한데 기인
 - 수입물가는 약 4~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반영

〈그림 5〉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그림 6〉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



I. 최근 경제동향

□ 임금 및 임단협 추세

- '07년 9월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 업체의 임금인상률(총액기준)은 5.0%
 - 지난 해 같은 기간(5.1%)에 비해 0.1%p 감소
- 임금교섭 진행이 완료된 사업장 비율(진도율)은 46.8%
 - 지난 해 같은 기간 진도율(56.1%)에 비해 다소 낮음.
 - 한미 FTA,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교섭지연

〈표 3〉 07.9월 말 임금교섭 타결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사업장수(A)	타결사업장수(B)	진도율(B/A×100)	임금상승률
총계	6,561(6,330)	3,072(3,553)	46.8(56.1)	5.0(5.1)
민간부문	6,326(6,112)	3,016(3,495)	47.7(57.2)	5.1(5.1)
공공부문	235(218)	56(58)	23.8(26.6)	3.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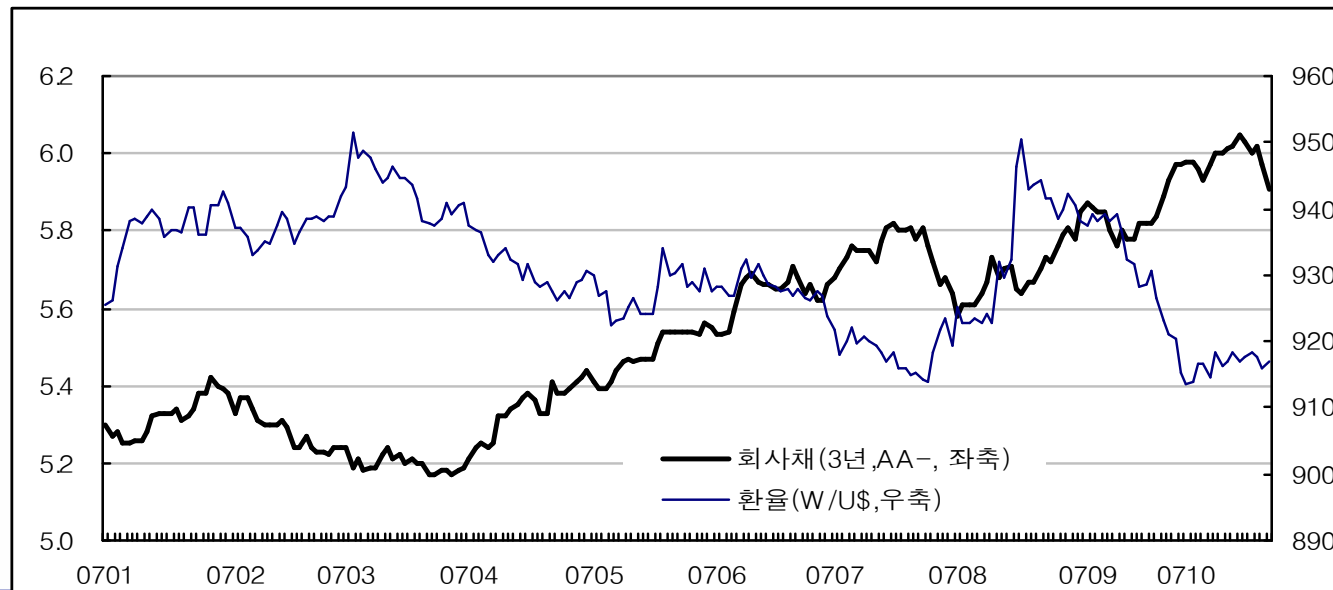
주 : () 안은 전년 동기

I. 최근 경제동향

□ 8월 말 이후 금리는 상승세, 환율은 하락세를 보임

- 시장금리는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점차 확산되면서 상승 기조를 시현
 - 회사채 수익률 : 5.85%(8월 말) → 5.97%(9월 말) → 5.91%(10/22)
- 미국경기의 둔화 가능성 확대, 미연준의 공격적 금융시장 안정책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다소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8월말 이후 하락세를 보임.
 - 원/달러 환율 : 933.8(8월 말) → 932.4(9월 말) → 917.0(10/22)

〈그림 7〉 회사채 수익률과 환율



I. 최근 경제동향

□ 자본 유출입 현황

- 자본수지는 지난 해에 이어 올 해에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
 - 지난 해에는 186억 달러, 올 해(1~8월 중)에는 약 117억 달러 순유입
 - 해외단기자금차입 증가에 따른 기타투자수지의 증가에 기인
- 단기자금 차입으로 단기외채비중이 급격히 증가
 - 2007년 6월 말 현재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4.3%로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수준에 육박
 -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원화절상 추세를 가속화할 우려

<표 4> 자본 유출입 추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연간	연간	1/4	2/4	7월	8월	1-8월
자본수지	76.0	47.6	186.2	53.1	64.4	5.37	-6.04	116.83
직접투자수지	45.9	20.1	-34.8	-9.6	-28.7	-0.03	-13.7	-52.03
증권투자수지	86.2	-17.3	-225.4	-10.5	-0.27	-69.3	-61.9	-141.97
기타투자수지	-38.6	68.1	476.8	175.8	100.2	76.9	71.7	424.6
외국인기타투자	42.8	94.7	564.4	186.3	138.6	95.1	99.8	519.8
[차 입]	-9.4	10.2	433.6	146.7	94.2	59.9	78.5	379.3



II. 경제전망



II. 경제전망

1. 대외여건

-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경기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07년(5.2%)보다 낮은 4%대로 전망
 - 미국경제, 주택경기 침체,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경기부진
 - 일본경제, 해외수요 감소와 설비투자 둔화로 회복세 약화
 - 유로지역경제,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경기 둔화

〈표 5〉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2006년	2007년		2008년		
		IMF	OECD	IMF	OECD	투자은행 ¹⁾
세계성장률	5.4	5.2	2.7	4.8	2.7	-
미국	2.9	1.9	2.1	1.9	2.5	2.2
일본	2.2	2.0	2.4	1.7	2.1	1.8
유로	2.8	2.5	2.7	2.1	2.3	2.0
중국	11.1	11.5	10.4	10.0	10.4	10.4

주: 1) 14개 주요 투자은행들의 9월말 전망치를 평균한 수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7,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07

□ 2008년 중국경제

- 대규모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등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 증가
 - 무역흑자는 1~8월 중 16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외환보유액은 9월 말 기준 1조4336억 달러에 육박
- 위안화 절상 가속과 경기과열 억제정책을 추진이 불가피
 -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G7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
 -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최근 크게 상승(2007년 8월 전년동기비 6.5%증가)

□ 2008년 중국경제

- 긴축정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듯
- 중국증시의 PER(55배)가 선진국(14배), 신흥 아시아 국가들(15배)에 주가버블 붕괴의 위험성은 있음.
- 하지만 풍부한 시중유동성, 낮은 금리, 상장기업 이익증대 등을 고려할 때 긴축과 이에 따른 증시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듯
- 당분간 1~2년 동안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지속될 전망
- IMF와 OECD는 200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10.0%, 10.4%로 전망
- 단, 임금상승, 부동산가격 급등, 소비자물가 오름세 확대 등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

□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약세 등으로 강세가 예상되나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과 달러약세는 유가상승요인

- 이란의 핵 개발 추진과 관련한 미·이란간 긴장 재발 가능성 상존, 나이지리아 정정불안 등
- 달러약세의 영향으로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 상승 → 원유 투자 확대 → 유가 상승

II. 경제전망 -대외여건-

- 하지만 수급불균형 완화로 상승폭이 제한될 전망
 - 세계경기 상승세 둔화로 원유수요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 산유국들에 대한 증산압력, 그 동안 감산에 따른 추가 생산여력 확충 등으로 원유공급 상황 개선
 - 세계경기 경착륙으로 원유수요가 급감할 경우 국제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II. 경제전망 -대외여건-

〈표 6〉 해외주요기관 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전망시기)	기준유종	2006년	2007년	2008년	시나리오
CGES(9.17)	Brent	65.00	69.50	81.50	기준유가
CERA(9.24)	Dubai	61.46	65.80	63.50	기준유가
	Dubai	61.46	66.55	92.25	고유가
	Dubai	61.46	64.18	51.25	저유가
EIA(9.11)	WTI	66.02	66.97	71.17	기준유가
PIRA(9.27)	WTI	66.00	69.55	75.00	기준유가

주: CGES :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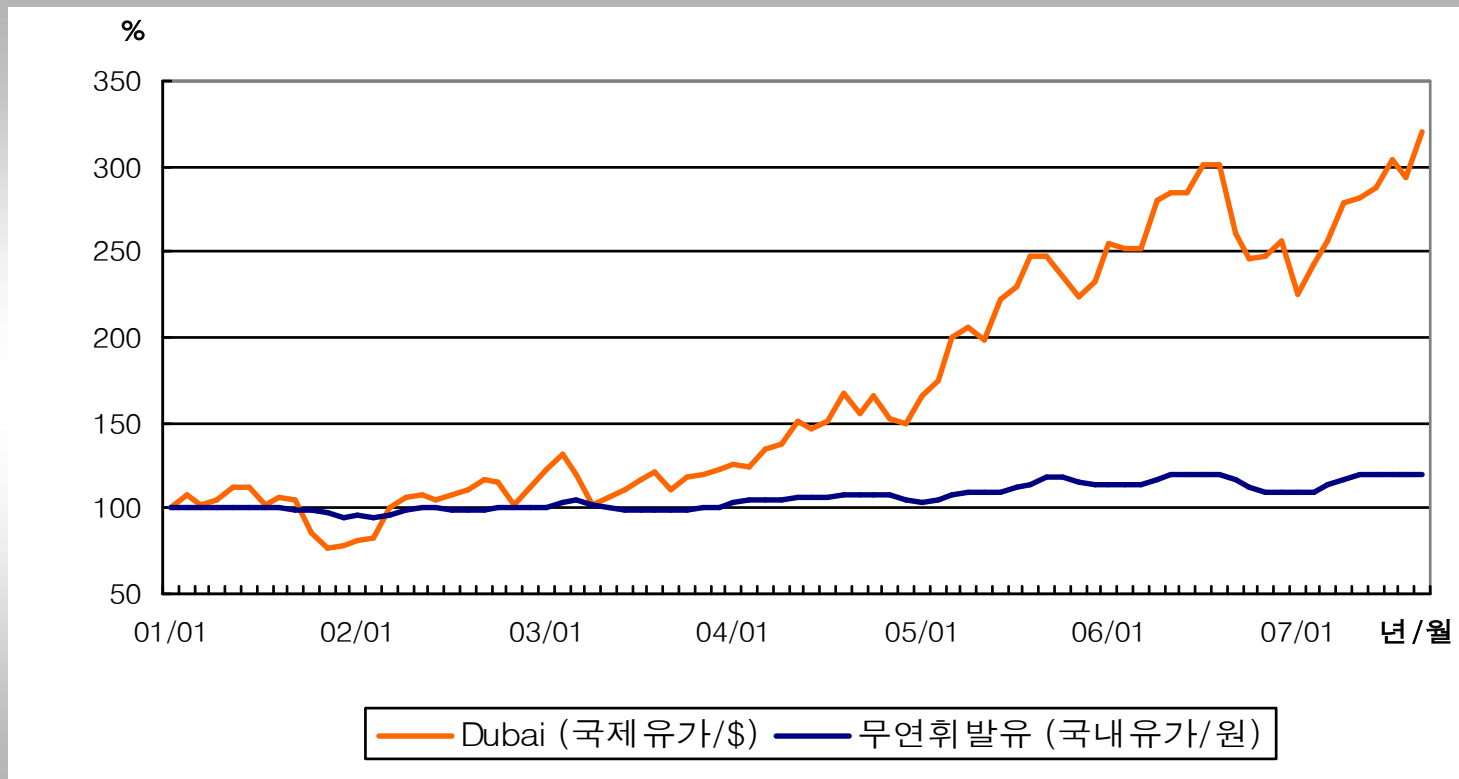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휘발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

〈그림 8〉 유가 변동 추이 (2001년 1월 가격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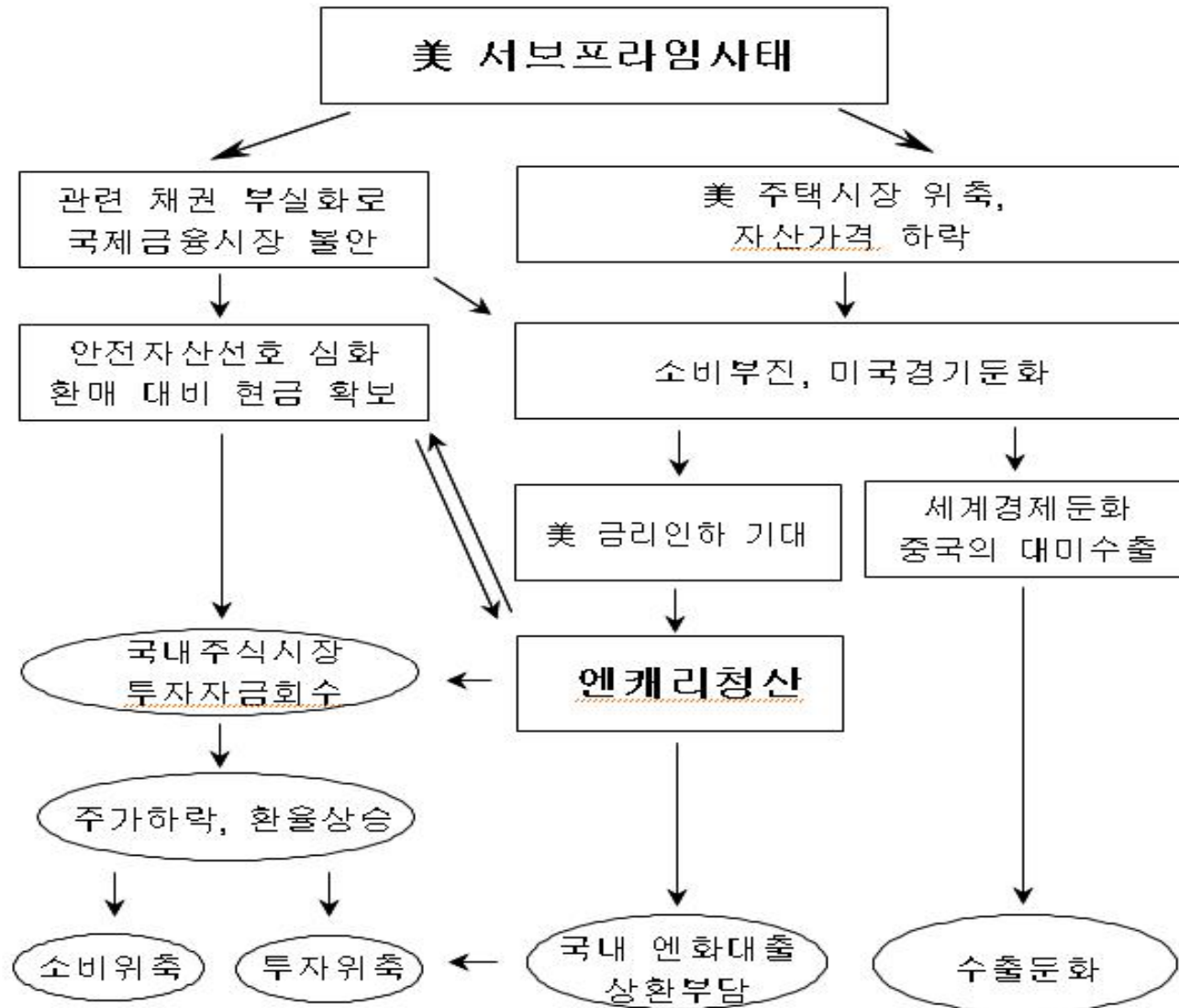


□ 국제금융시장불안 잠복

-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내년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본원인인 미국 주택경기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음.
- 10월 19일 미 증시 급락은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신용경색 및 경기불안 문제가 아직 진행중임을 보여줌.

II. 경제전망 -대외여건-

〈그림 9〉 美 서브프라임사태의 국내경제파급



II. 경제전망

2. 대내여건

- **신정부 출범과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추진**
 -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가 '경제 살리기'인 만큼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의 완화**
 -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의 북핵시설을 연내 불능화 합의, 남북정상회담(10.2~4) 등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기여
-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지속**
 -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유동성과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등 국내 펀더멘털 및 통화정책 여건 상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크지 않음.

II. 경제전망

3. 2008년 국내경제전망

□ 실질 GDP 5.1% 성장

-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한 자리 수의 수출 증가율이 예상되지만, 건설 및 설비투자과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의 증가로 인해 2008년 실질 GDP는 2007년(4.7%)보다 높은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4.6% 증가

- 2008년 민간소비는 정부의 2007년 세제개편안 및 소비심리 개선 등에 의해 연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의해 민간소비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II. 경제전망

3. 2008년 국내경제전망

□ 건설투자 3.2% 증가

- 2008년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는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착공 등으로 공공부문의 주도로 연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 9.0% 증가

- 2008년 설비투자는 2007년의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인해 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9.0% 증가 전망

II. 경제전망

3. 2008년 국내경제전망

- 수출증가율 한자리수로 둔화,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 상회
 - 수출다변화, 제품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미국경제의 둔화, 중국의 거시경제 긴축기조, 달러약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둔화될 전망
 - 수입증가율은 내수회복세, 원화절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7년 하반기에 이어 2008년에도 수출증가율을 상회
- 2008년 경상수지는 98년 이후 10년만에 적자(약 -33억 달러)전환
 -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국내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부족, 원화절상 등으로 해외 서비스 수요 증가하면서 적자확대 추세를 지속할 전망

II. 경제전망

3. 2008년 국내경제전망

-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2.3%)보다 높은 2.6%
 -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내수회복 등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

- 2008년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 기준)는 2007년(5.6%) 보다 높은 평균 6.1%
 - 국내외 실물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 따른 자금수요의 증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양호한 채권 수급 등이 금리상승요인


- 2008년 환율은 2007년(약930원)보다 소폭 낮은 910원으로 예상됨.
 -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겠으나 경상수지 악화 등 원화약세 요인으로 인해 하락세가 제한

II.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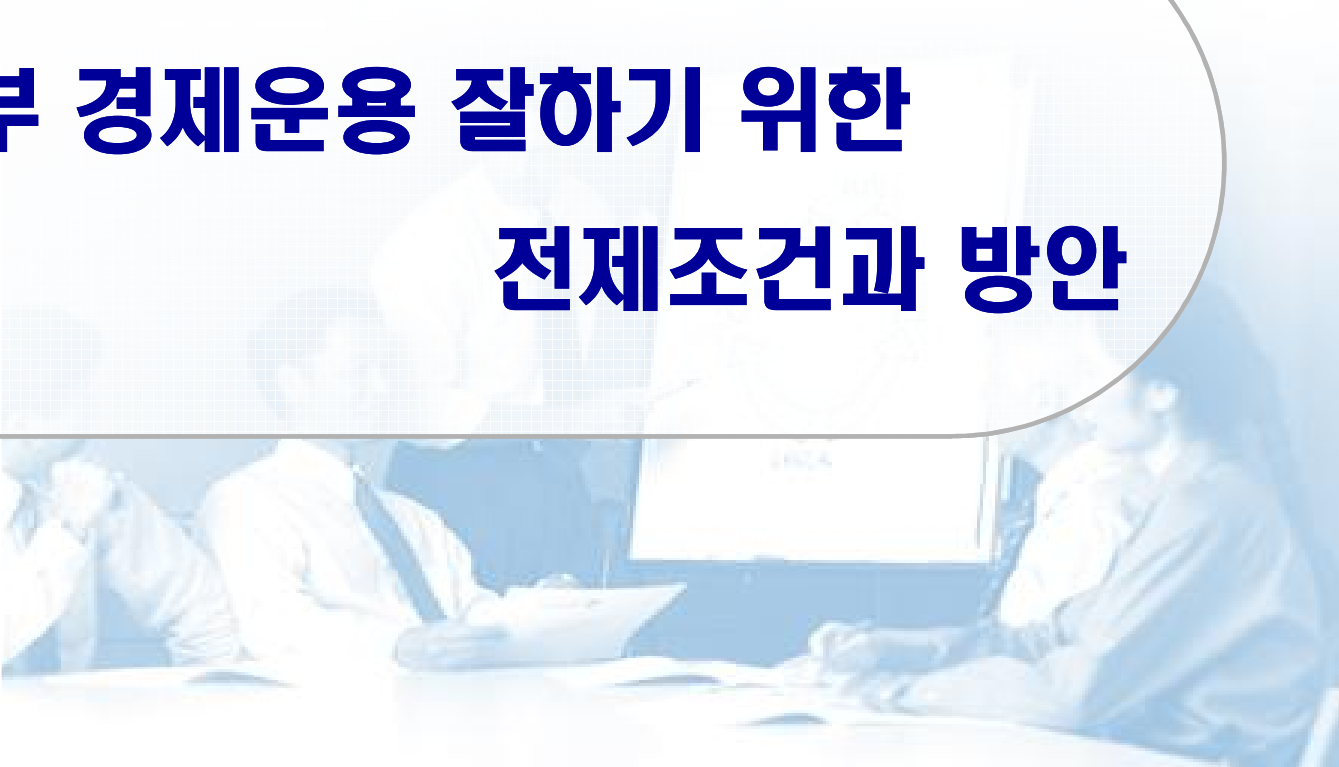
〈표 7〉 2008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Q	2Q	상반	3Q	4Q	하반	연간	연간
GDP	5.0	4.0	5.0	4.5	4.7	5.0	4.8	4.7	5.1
민간소비	4.2	4.1	4.2	4.1	4.3	4.4	4.4	4.2	4.6
건설투자	-0.4	3.9	3.2	3.5	1.7	0.3	0.9	2.1	3.2
설비+무형고정자산	7.8	10.1	11.0	10.5	6.2	7.5	6.9	8.7	9.0
소비자물가	2.2	2.1	2.4	2.3	2.3	2.5	2.4	2.3	2.6
경상수지(억 달러)	60.9	-16.6	0.3	-16.3	10.4	35.1	45.6	29.3	-32.9
상품수지(억 달러)	292.1	60.4	69.7	130.1	78.9	93.5	172.4	302.5	274.0
수출(억 달러, BOP기준)	3318.4	864.7	929.0	1793.6	939.8	988.3	1928.1	3721.8	4086.5
증가율%	14.8	14.1	13.1	13.6	10.2	11.5	10.9	12.2	9.8
수입(억 달러, BOP기준)	3026.3	804.3	859.3	1663.6	860.9	894.9	1755.7	3419.3	3812.5
증가율%	18.4	14.0	15.0	14.5	8.9	14.3	11.6	13.0	11.5
서비스, 소득 및 경상이전 수지	-231.2	-77.0	-69.4	-146.4	-68.5	-58.4	-126.8	-273.2	-306.8
환율(원/달러, 평균)	954.8	939.1	928.9	934.0	928.0	920.0	924.0	929.0	910.0
회사채수익률(3yrs, AA-)	5.2	5.3	5.5	5.4	5.8	5.9	5.8	5.6	6.1



**Ⅲ. 새 정부 경제운용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안**



III. 새 정부 경제운용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안

1. 경제운용을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

- 기회 : 차기정부는 지난 두 정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초기조건에서 출범
 - 지난 두 정부는 출범 첫 해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 출발
 - 국민의 정부는 취임 첫 해인 199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7% 가까이 성장이 위축
 - 참여정부 역시 취임 첫 해 2003년에 신용카드 버블 붕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내수위축 경험

- 왜 참여정부 원년의 경기 부양책이 왜 효과를 내지 못했을까?
 - 참여정부는 2003년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시행
 - 수도권 규제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한도 6개월 연장, LG-필립스 파주공장 신설허용 (3월), 신용카드사 유동성 지원 (4월), 금리 인하 2회(5, 6월), 추경 4.5조원 (7월), 2005년부터 법인세 2% 인하 (12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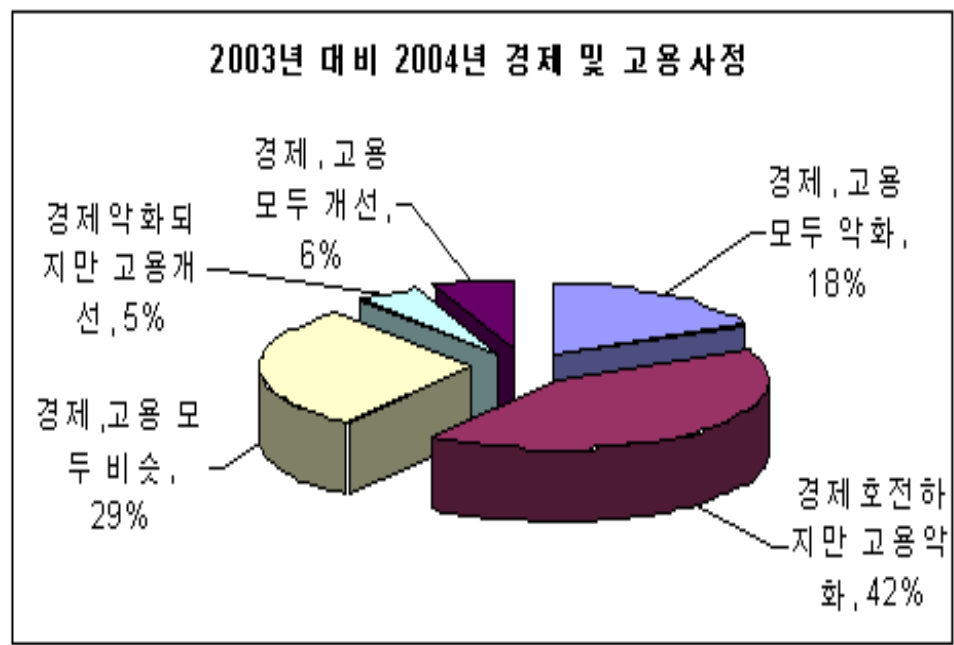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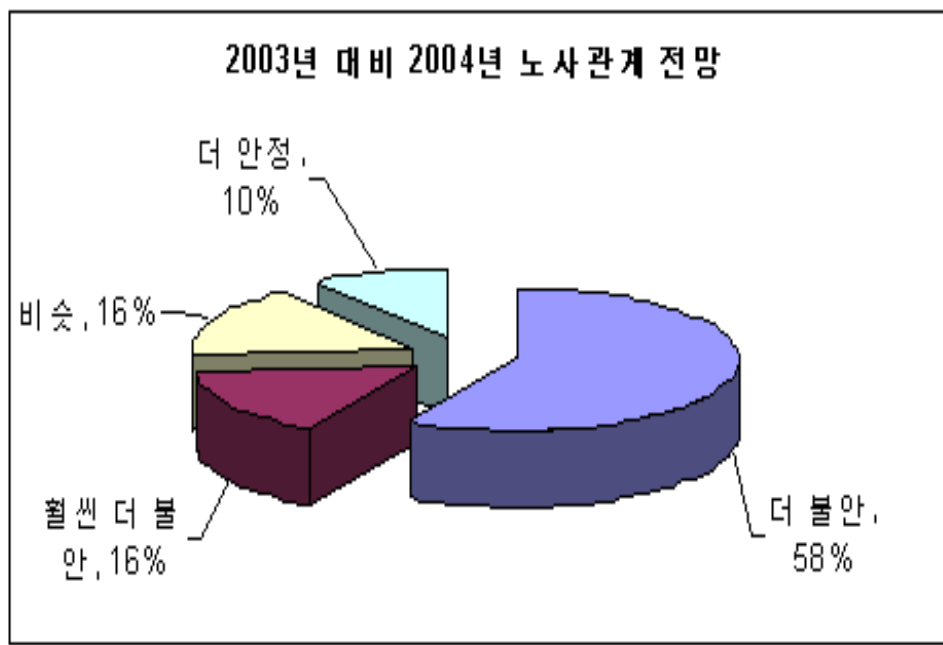
III. 새 정부 경제운용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안

1. 경제운용을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

- 극심한 노조와 이익집단의 불법행동이 연중 지속
 - 두산중공업 (연초),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 (5월), 철도, 지하철 등 '궤도연대' 파업 (6~8월), 조흥은행, 현대차 파업 (7월)
- 이런 경험은 노사관계, 경기 및 고용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투자심리를 악화시킴.

III. 새 정부 경제운용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안

〈그림 10〉 200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경총 조사, 노사 및 인사담당 임원대상)



III. 새 정부 경제운용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안

1. 경제운용을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

- **교훈: 엄정한 질서 확립과 사회 안정성 확보는 성공적 경제 활성화의 전제조건**
 -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한 법질서 확립
 -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 추구 관행 종식
 - 명분에 상관없이 불법적, 폭력 시위는 엄격히 차단
- **그 동안의 경험을 반영하여 일반 여론은 노조활동에 상당히 부정적**

III. 새 정부 경제운용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안

〈표 8〉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2,000명)결과

		1989년	2007년
근로자 요구조건의 정당성	정당하다	67.0%	41.3%
	과도하다	32.4%	57.1%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받는지 여부	정당하다	26.3%	52.3%
	부당하다	64.5%	41.3%
노동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좋다	53.3%	16.0%
	나쁘다	26.4%	57.8%
근로자 임금인상 요구가 경제 여건 및 회사사정에 비해 과도하다			70.3% 찬성
성장을 위해 노조활동을 자제			74.1% 찬성

자료: 노동연구원

III. 새 정부 경제운용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안

2. 새 정부 초기의 정책초점: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같은 구체적 목표 제시

□ 참여정부 기간 중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극히 부진

- 참여정부 기간 중 취업자 증가율(1.1%)은 외환위기를 겪은 국민의 정부(1.0%)와 유사
- 98년을 제외할 경우, 취업자증가율은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2.7%)보다 오히려 낮음.

III. 새 정부 경제운용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안

〈표 9〉 역대 정권별 주요 실물지표 추이

단위: 증가율, %

	연도	실질 GDP	내수	수출	취업자
전두환	1981~1987	8.7	8.2	14.2	2.6
노태우	1988~1992	8.4	10.4	7.1	3.1
김영삼	1993~1997	7.1	7.3	17.3	2.2
김대중	1998~2002	4.4 (7.2)	2.7 (7.7)	11.4 (11.1)	1.0 (2.7)
노무현	2003~2007	4.3	2.5	13.2	1.1

주: ()내 수치는 1998년 제외한 4개 연도 평균치

내수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무형고정자산 투자

III. 새 정부 경제운용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안

- 일자리 창출은 내수회복과 가장 밀접한 관련
 - 취업자증가율과 내수증가율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음
 - 1981년~2006년 기간 중 취업자 증가율과 내수증가율의 상관계수는 0.79로 다른 거시지표¹⁾에 비해 높음.
 - 이는 참여정부 기간 중 고용부진이 내수침체와 무관치 않으며 일자리 창출의 해결책은 내수활성화임을 시사
- 일자리 50만개 창출에 필요한 2008년 내수 증가율은 약 6.5%
 - 2008년 취업자 수 50만 명 증가를 위해서는 내수가 약 6.5% 증가해야 함.
 -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내수 1% 증가는 취업자를 0.26% 증가

1) (취업자증가율, 성장률) = -0.02, (취업자증가율, 내수증가율) = 0.79, (취업자증가율, 수출증가율) = 0.06

III. 새 정부 경제운용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안

□ 내수가 6.5% 증가하기 위한 소비와 투자의 가능한 조합

- 역대 정부의 평균 내수증가율을 고려 할 때 6%대 중반의 내수증가는 무리한 목표가 아님.

- 전두환(8.2%), 노태우(10.4%), 김영삼(7.3%), 김대중(7.7%, 1998년 제외)
- 조합 1은 고정투자를 baseline 수준에 고정할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이 6.8%로 상승해야 함을 보여줌.
- 조합 4은 민간소비를 baseline 수준에 고정할 경우, 고정투자 증가율이 9.7%로 높아져야 함을 보여줌.

III. 새 정부 경제운용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안

〈표 10〉 50만개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내수증가율 조합

단위: %

	조합 1	조합 2	조합 3	조합 4
내수	6.5	6.5	6.5	6.5
민간소비	6.8	6.5	5.5	4.6 (baseline)
고정투자	5.9 (baseline)	6.5	8.1	9.7
GDP	6.2	6.2	6.2	6.2

주: 고정투자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무형고정자산 투자

3. 정책방안

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 일자리 보유자 보호에 맞추어졌던 정책초점이 이제는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로 옮겨져야 함.
- 비정규직 보호강화 보다는 청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가 시도하는 '최초고용계약제도' 와 같은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 2006년 63.8%인 우리나라의 고용률(15~64세 기준)을 일본수준(70%)으로 높인다면 약 210만 명 고용증가

3. 정책방안

② 감세를 통한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활성화

- 참여정부 기간동안 공공부문 확장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제약하고 민간부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감세가 바람직한 수단
- 법인세 인하는 자본수익률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
- 과표 양성화율을 높이고 면세점을 인하하여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함. 이를 통해 세수가 증가하면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근로의욕을 고취, 생산성 향상 도모

3. 정책방안

③ 출자총액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 전경련은 2006년 출자총액제와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2년 내에 약 27조 원이 투자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만약 2006년에 27조 원의 50%(13.5조 원의 실질가치는 약 11.8조 원)가 투자되었을 경우, 고정투자의 규모는 214.6조 원이 아닌 226.3조 원으로 증가하며 고정투자 증가율은 3.2%에서 8.8%로 상승하였을 것임.
 - 승수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금액만큼 실질GDP가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2006년 성장률은 5.0%가 아닌 6.6%가 되었을 것임.



2008년 이후 경제전망 좋아지게 하는 쉬운 방법

1. 수출 증가세 지속될까 [?]

서브프라임 부실, 중국, 고유가

2. 소비, 투자 등 내수 본격적으로 좋아지나 [?]

고유가, 자본유입과 금융 및 외환시장 시장 불안

3. 새 정부, 경제운용 잘 할까 (YES!)

취임초기부터 초점 맞추어진 국정운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

